

최종편집 : 2021-10-15 10:33 (금)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f t y v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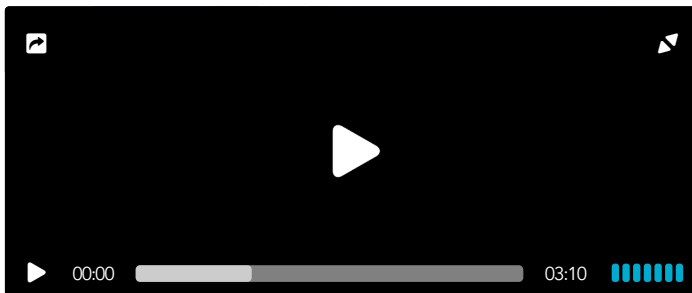


홈 > 불교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화엄문화축제...“잊을 수 없는 산사의 추억”

진재훈 기자 | 입력 2021.10.03 16:48 | 수정 2021.10.04 00:40 | 댓글 0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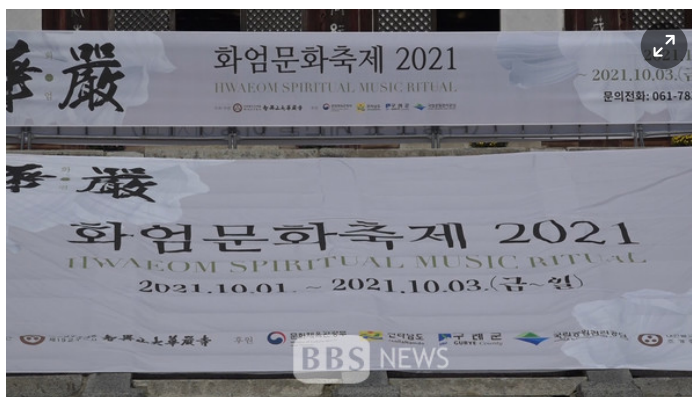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앵커

깊어가는 가을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불교와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인 '2021 화엄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날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화엄사에 도착해 화엄음악제를 함께 하며 가을 산사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BBS 진재훈 기잡니다.



기자

최신뉴스

- 정치 | 원희룡, 김만배 영장기각 "검찰 수사 의지 없어, ...
- 정치 | 이재명 "차이 넘어 더 큰 힘으로"...민주당 원팀' ...
- 경제 | 정부,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 지속...경제 회복...
- 사회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
- 사회 | 정부,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전망

포토뉴스



인기뉴스

- 이완구 전총리 별세
- 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여부 곧 결정
- 사적모임 인원 완화...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
- [코로나19]목포-구례 초중학생 9명 집단감염...추가 확산
- [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과 하나 됨을 느낍니다.

화엄문화축제 첫 날.

화엄사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내 암자인 연기암까지 왕복 2km구간의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이름 짓고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그길.

참가자들은 이 길을 걸으며 효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인서트] 김익선 / 전남 구례군

(“연기암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너무 좋았고요. 연기암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6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성
남시청 압수수색



7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법제화



8 [코로나19] 18일부터 사적모
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BBS칼럼

- 전경윤의 '세상살이'
- 전영신의 '사상'
- 신두식의 '공감노트'
- 배재수의 '크로키'
- 이현구의 '스윗 스팟'
- 선임기자 칼럼 NEW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功德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높이 12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불화가 사찰 앞마당에 내걸렸습니다.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진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제자들과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그린
괘불로 17세기 걸작입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법공양에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목스님이 집전하는 괘불재가 시작됩니다.

법고와 태징, 태평소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하늘 나부끼는 장삼 자락의 춤사위가 창공을 힘차게 가릅니다.

바라를 들고 펼치는 화려한 승무는 웅장한 범패 소리와 함께 절정을 이룹니다.





[인서트]인목스님 / 조계종 어산 여장

(“올해는 모사본 괘불부처님이 아니라 진본 괘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고 또 불교 중흥을 위해서 삼보사찰 108 천리 순례가 원만하게 장애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주지 스님이 배려를 해서 오늘 이렇게 괘불재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함께 한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올해 화엄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화엄, 길 위에 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원만 회향을 서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화엄음악제.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화엄문화축제로 변경하고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 순례단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했습니다.

BBS뉴스 진재훈입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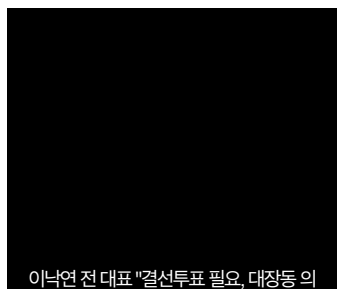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교육기획기]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흑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원희룡, 김만배 영장각각
"검찰 수사 의지 없어, 김오



이재명 "차이 넘어 더 큰 힘
으로" ...민주당 원팀' 의지



정부, 대면서비스업 등 불
확실성 지속...경제 회복속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
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정부, 다음 달 1일 위드 코
로나 전환 전망



노규덕 16일~19일 방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BS